



변모

두초(Duccio di Buoninsegna, 1255-1319)
1308-1311, 목판에 템페라, 48×50.5cm
내셔널 갤러리, 영국 런던

입당송 | 시편 27(26), 8, 9 참조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1독서 | 창세 15, 5-12, 17-18

화답송 | 시편 27(26), 1, 7-8, 9, 13-14(◎ 1ㄱ)

-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
-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 필리 3, 17-4, 1 <또는 3, 20-4, 1>

복음환호송 |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루카 9, 28ㄴ-36

영성체송 | 마태 17, 5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수난 너머의 영광을 향하여



강병완 브루노 신부 | 성바오로수도회

지난 3월 5일 재의 수요일과 함께 시작된 사순 시기는 어느덧 제2주일에 다다랐습니다. 이 사순 시기 동안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셔서 몹시 지치셨거나,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고뇌에 가득 찬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순 제2주일인 오늘 루카 복음사가가 들려주는 본문 속 예수님은 수난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영광스럽게 변모된 모습입니다. 언뜻 보기에 수난과 영광은 서로 잘 어울리지는 않는 듯합니다.

사실 오늘 복음인 루카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시작하신 갈릴래아 전교 활동을 전하는 4장부터 9장까지의 여정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며, 특히 9,51은 새로운 국면,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시작은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전환점이 되며, 예수님께서 성부 하느님께 파견 받으시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려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향하고 있고 거룩한 도시라고도 불리는 예루살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여겨졌으며,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과 부활의 장소가 될, 하느님의 아드님이 지상에

서 하신 여행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나타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변모를 서술하면서 그분의 달라진 얼굴과 하얗게 빛나는 의복이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언급하지 않고, 그분께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이야기도 함께 전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과 “곧 세상을 떠나실 일”로, ‘떠나실 일’은 이 문맥 안에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이루실 일’은 예수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예언의 성취’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화는 영광만이 아닌 그분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야만 했던 일에 대한 예고를 이미 포함하고 있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거절과 수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짐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안에서 오늘 복음의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수난과 영광을 앞당겨 보여주며 앞으로 맞이하게 될 기쁨과 희망의 시기인 부활을 준비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수난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희망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소리와 침묵

두초의 ‘변모’는 시에나대성당의 제단화 <마에스타>(Maestà, 장엄)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놀라 손을 들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나눈 대화의 참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영광의 순간에 머물고자 합니다. 반면, 모세와 엘리야는 슬픈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빛나는 옷을 입으신 예수님만이 평온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제자들은 구름 속의 소리를 듣고 침묵하며 스승의 수난을 견뎌야만 합니다. 영광이 완성된 후 그들은 ‘부활’을 소리칠 것입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그림으로 읽는 복음



정미연 아기예수의 데레사 | 성화작가

하느님께서 돌리시는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 작은 점들이 모여 우주를 밝힙니다. 제가 그림을 시작한 것도, 인체를 그리게 된 것도, 우연히 흙 작업을 하게 된 것도 그분의 섬세한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깨닫습니다. 묵주기도 책을 시작으로 사순 묵상, 실크로드를 비롯해 인도, 아프리카 여행길, 사도 바오로, 이육사, 에밀 타케 신부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이르기까지 무던히도 다양한 주제를 담은 책 작업으로 주님께서는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림과 조각으로 쉽 없이 달린 저는 마침내 신약성경을 주제로 3년에 걸쳐 여러 교구 주보 표지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으로 읽는 복음!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담아내는 성경 속 여행은 방대한 대서사시였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그림이지만 조금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하늘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하는 작업! 인쇄 효과를 위해 크기를 정하고, 밑 작업으로 젤스톤을 바르고 여러 재료를 덧입혀 그림의 깊이를 더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장씩 그려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껴안고 산책할 때나, 부엌에서나, 기차 안에서나, 꿈속에서도 머릿속은 늘 그 주일의 주제로 가득 찼습니다. 볼 수 없는 하느님을 그려야 하거나, 6주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의 말씀일 때, 사랑, 용서, 삼위일체, 그리움 등등 추상적인 언어를 그림으로 풀어야 할 때마다 제 역량의 한계를 얼마나 느꼈던지요.

어느 캄캄한 밤, 남편과 삼릉 소나무 길을 산책하다가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발목 위로 벼락치듯 불꽃이 튀었어요. 복숭아뼈에 금이 간 것입니다. 석 달 동안 깁스를 하고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하느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느 순간 그

분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겸손! 또 겸손!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작아져야만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온 세포를 타고 마음에 와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전 삶을 그리는 시기에 저를 붙잡아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날들이 지나가고, 쌓여가는 그림을 다시 보기가 두려워 촬영 후 바로 덮어 두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화실 바닥에 떨어지는 마음으로 그 많은 그림을 하나씩 펼쳐 보니, 고민하던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그림 속에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울음은 그분의 위로였을까요? 저의 작은 시간 위로 하느님의 시간이 머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고백을 제 입술에 담아 주님께 올립니다. “살아 계시는 주님, 당신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연준 사도요한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 판공성사가 무엇인가요?



사진출처: 가톨릭평화신문

지난 3월 5일 ‘재의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 시기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년 봄에 맞이하는 사순 시기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시기’(로마 13,12 참조)이며, ‘악마에 대항하여 악령과 싸워야 하는 기간’(에페 6,11-17; 1베드 5,8 참조)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때를 ‘우리가 악마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회개와 보속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내적인 준비를 위해 판공성사를 봅니다. 사실 ‘판공성사’는 한국 천주교회의 특수 용어로 1년에 두 번,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 보는 고해성사를 가리킵니다.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후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라고 교회법 제989조는 말하지만,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1년에 두 번 춘추(春秋)로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관례였고 이를 ‘판공’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판공성사’는 별도의 성사가 아니라 하느님과 화해하는 ‘고해성사’입니다.

“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의 단절이며 동시에 교회와 이루는 친

교에도 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느님의 용서를 가져다주고 교회와 화해를 이루게 하며, 고해성사는 이를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가톨릭교회 교리서》 1440항)합니다. 그러니 고해성사는 사제가 베푸는 성사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성사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즉, 고해성사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대림 시기때 판공성사를 보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 모여서 한꺼번에 참회 예절로 판공성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을 위험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먼저 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법》 제961조 또한 대림 시기 때 판공성사를 보았더라도 삶을 잘 성찰해 보면, 우리를 영적으로 허약하게 만들어서 영적 건강에 해를 입히는 죄에서 벗어나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사표가 나와서 의무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의미를 알고 기꺼이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성된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 절대로 귀찮아하시거나 지치지 않으십니다.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하느님께 심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 용기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새 회칙 <Dilexit nos>를 중심으로)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최근 자신의 ‘마음’(heart)을 돌보는 현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Mindfulness) 훈련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거나, ‘자기연민’(Self-compassion) 연습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지요. 남에게 보이는 물질적 성과나 외적인 성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회가 일상 속 개인의 내면이나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라도 한 것일까요? 어느덧 현대인들에게 ‘마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새로운 문명 건설에 관한 회칙,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Dilexit nos)에서도 마음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교황님은 마음이 우리의 진짜 의도이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믿고 바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은 한 개인을 드러내는 본연의 모습이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세상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지요.

사실 그동안 신학이나 다른 학문에서 ‘마음’은 중요한 주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마음’을 명확한 학문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성이나 자유와 같은 개념에 비해 폄하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현대에 이르는 동안 인류는 이성과 자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참혹한 병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성이나 자유는 조작되기도 하고, 반인

륵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처럼 황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통해 우리 내면에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를 당신 마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마태 11,28-29)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비천한 인간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도 형제자매 중 가장 작은 이에게 다가서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고 있나요?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에서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이 내면의 타자가 되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치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치유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샤를 드 푸코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분께서 나자렛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살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기”(1코린 2,16) 때문에 그 사랑은 확장되어 세상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마태 5,8)



은성제 요셉 신부 | 가톨릭청소년이동쉼터(서울A지T) 소장

저는 ‘서울아지트’라는 곳에서 버스를 몰며 사목하다가, 청소년 시기를 힘겹게 보내는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은 똑똑한 아이들을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안정적인 마음으로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충분한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똑똑한 아이들마저 어리석게 사는 것을 자주 봅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한 부모 밑에서 무관심, 몰이해, 방임, 지속적인 언어폭력, 폭행 등을 겪게 되면 어린 씨앗은 자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보통 “신부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부모가 먼저 아이들에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옳지 않나요?”라고 하지만, 내가 먼저 용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가족들에게 받았던 상처의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신부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아지트 친구들 안에서 일하는 예수님을 통해 저도 배운 겁니다. 아지트에 오는 친구들은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어도, 상담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당을 다니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되잖니? 우리 한번 예수님

께 가보자.”고요. 어떤 친구는 비웃고 무시하지만, 어떤 친구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인 친구들은 놀랍게도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자신의 어머니를 용서했으며, 그동안 냉담했던 어머니를 다시 교회로 인도했죠. 그리고 그 어머니 역시 지금은 회개의 삶을 살며 고마워하고 있어요. 또 부모님의 자녀 차별과 학대, 형제의 무관심으로 고통받던 또 다른 친구 역시, 그간 정신과 약에 의존했었지만, 이제는 부모에게 들었던 독이 가득 서린 말들에서 용서를 통해 서서히 해방되어 나오는 중이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친구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어느 날 “신부님,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꿈이나 환상 같은 걸 본 적이 없는데, 기도 중에 예수님이 아기인 저를 안고 있는 모습을 선명히 봤어요.”라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부모에게 받은 부정적인 말의 사슬에서 벗어나 폭식이나 자해 등의 자학 행동을 멈추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죠.

이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미워하던 이를 용서하는 것은 마음 안에 있던 썩은 음식들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썩은 음식을 버려야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해지듯 마음의 상처들은 내가 먼저 버림으로써 치유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행복하길 원하시나요? 내가 먼저 용서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질 거고, 하느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심을 자양분으로 삼은 믿음



도서 《종교가 사악해질 때》

교황의 갑작스러운 선종 이후 벌어지는 교황 선거를 그린 가상의 이야기를 담은 어느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이자 추기경단의 단장이 교황 선거를 앞

두고 봉헌되는 미사를 집전하며, 준비한 원고 대신 자신의 마음에서 즉흥적으로 우리나라 이야기를 강론으로 전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동안,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죄는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은 통합의 강력한 적입니다. 확신은 포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그리스도조차 중국에는 확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가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9시간을 매달리신 후 고통 속에서 그렇게 외쳤죠. 우리 신앙이 살아 있는 까닭은 정확히 의심과 손을 잡고 걷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도 필요가 없겠죠. 의심하는 교황님을 보내주십사, 주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그 의심 덕분에 가톨릭 신앙은 계속해서 생명을 얻고, 그로써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비교종교학 교수인 찰스 김볼의 저서 《종교가 사악해질 때》는 오늘날 종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와 함정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종교가 사악해지는 다섯 가지 징후에 대해 다룹니다. 우선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자기들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전의 오용과 악용이 빈

번히 일어납니다. 둘째,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종교 지도자가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문을 억누를 때 커다란 위험이 생겨납니다. 셋째, 이상적인 시대를 확립하려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물론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종교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입니다. 하지만 이상을 편협하게 정의하고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방식만으로 이루려는 이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종교적 목표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숭고한 목적만을 강조하며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면 이미 타락한 종교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국제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전쟁뿐만 아니라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확신을 펼치고 나와 다른 신념이나 성향을 지닌 이들을 향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도 해당됩니다.

‘너희와 많은 이들’,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의지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의심을 자양분으로 삼은 믿음을 지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룰 때, 예수님께서 바라는 모습의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일굴 수 있습니다. 《종교가 사악해질 때》에 담긴 오늘날 종교를 향한 날카로운 진단을, 신앙공동체에 몸담은 우리 각자를 향한 진단으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국내수학

사순 시기

사순은 본래 '40일'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지칭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간 재를 지켰고, 엘리야 예언자도 호렙산에 갈 때 40일을 걸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신자들은 참회와 회개, 극기, 회개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 대축일을 준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성묘 안내

1) 천주교 용인추모공원 한식 성묘 안내

차량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02-727-2225) 후 송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 / 미사: 4월 5일(토) 오전 10시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승차권 예매: 3월 10일(월)부터 선착순 자리 배정(1대 1만 5천 원-조기 마감 가능 / 4월 2일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식사 및 성묘-개별 준비 /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1588-9769 천주교용인추모공원

2) 천주교 비봉추모관 한식 성묘 안내

미사: 4월 5일(토)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명례방(아외제대), 우천시 추모관 내 1층 / 식사 및 성묘-개별 준비
승차권 예매: 도림동성당 출발(신청: 02)833-9439)
미사 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4년 3월 21일 김창수 마르티노 신부(48세)
- 2005년 3월 17일 백은기 라파엘 신부(66세)
- 2011년 3월 23일 박인선 도미니코 신부(59세)
- 2017년 3월 21일 김영일 발타사르 신부(88세)
- 2022년 3월 23일 차원석 토마스 신부(73세)

교구청 알림

가톨릭학생회(KYCS) 회원 모집

대상: 중고등학교 학생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학교사목부(Cell)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유경 개인전: 1전시실
김정자 사진전: 2전시실
김성희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3월 14일(금)~23일(주일)

가톨릭교육자의 날

내용: 서울 가톨릭초·중·고등교육자들이 다 함께 모여 미사·특강을 통해 위로받고 신앙을 다지는 시간
대상: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중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때: 4월 26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곳: 성심여자중·고등학교(용산) / 회비: 3만원
미사: 이경상 주교, 담당사제 공동 집전
신청: 온라인 신청서(<https://www.kyccs.or.kr>) 팝업창 참조
문의: 02)566-5456, 02)553-7320 학교사목부(CCE)

2025년 임신부와 태아의 희년(태아축복식)

대상: 임신부, 남편, 가족 등 250가정
때: 3월 30일(주일) 13시30분 / 3월 15일까지 접수
곳: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351
신청: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신청 가능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3월 31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민정 이사벨, 최석원 아교보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온라인 구역반장학교

대상: 구역장·반장 / 교육기간: 4월 16일~5월 30일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수강 방법 추후 안내)
회비: 2만원(4월 9일 접수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 미사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가 4월 11일(금) 오후 3시, 교구청별관 6층 경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입금하셨으나 후원회원 등록을 못하신 분들에게는 꼭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02)727-2073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
교육기간: 4월 9일부터 매주(수) 오전 10시(10주 과정)
곳: 천주교 노동사목화관 6층 경찰사목위원회(보문동)
접수: 4월 2일(수)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신청): 02)742-9471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https://catholicpolice.or.kr/html/dh/cam03>) 참조

2025년 희년 '사목국 노인사목팀과 함께하는 성지 순례'

1) 프랑스 성모 성지 순례

때: 4월 23일(수)~5월 4일(주일) 총 12일
예산 비용: 550만원 / 인솔: 박민우 신부
주요 순례지: 루르드·라 살레트·퐁텐(성모 발현지), 리지외(성녀 소화테레사의 고향), 파레르 모니알(예수 성심 발현지), 푸이·로카마두르(검은 성모님 성지) 등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2) 이탈리아 희년 순례

때: 5월 28일(수)~6월 5일(목) 총 9일
예산 비용: 520만원 / 인솔: 나종진 신부
주요 순례지: 바티칸, 카스텔 간돌포(교황님 여름별장), 수비아코(베네딕토 성인의 은수 동굴), 아시시(프란치스코 성인의 고향) 등 / 문의: 1551-1053 CPBC 여행사

주교좌 명동대성당 2025년 사순 특강

때, 곳: 3월 17일~4월 7일 매주(월) 19시~20시, 명동대성당 대성전(4주간) / 문의: 02)774-1784

3월 17일(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요한 13,1)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3월 24일(월)	선교 순례의 희망	박용만
3월 31일(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조한철
4월 7일(월)	그저 보통의 삶을 꿈꾸며	이진희

시복시성 기원미사(208회) 및 합창단원 모집

1) 이 달의 하느님의 종 '고시수 아교보'

때, 곳: 3월 18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2) 합창단원(성가대) 모집

대상: 성가를 좋아하는 62세 이하 교우, 남성(테너, 베이스) 단원 환영, 매월 2회 평일 오전 미사봉헌 가능한 분 / 연습: 매주(월) 19시, 가톨릭회관(명동)
문의: 010-3898-3408 단장

사목위원 양성 연수(현장·온라인)

대상: 본당 사목위원(회장단 포함)
주제: 희년-희망의 순례자인 사목위원
때: 현장 4월 4일(금) 13시~17시, 온라인 4월 25일~5월 31일
곳: 현장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온라인 수강 방법 추후 안내
교육비: 현장 2만원, 온라인 1만원(3월 28일 마감)
현장·온라인 교육 내용 동일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민족화해위원회

1) 25 평화의 바람 기행(3기) 참가자 모집

대상: 도보순례 가능한 누구나 40명 / 회비: 7만원
때: 4월 11일(금)~12일(토) 1박2일
곳: 파주, 연천, 철원점경지역 순례
문자(신청): 010-4682-2412 품팔송 / 문의: 02)753-0815
2) 1457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3월 1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날본당': 서울교구 청계동 본당
문의: 02)727-2420

환경사목위원회

1) 제72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때: 3월 20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2) 제48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대상: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할 사람
내용: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 하늘땅물벗 소개, 수료 미사 및 수료식
때: 3월 18일~4월 22일 매주(화) 19시~21시(총 6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회비: 1인당 3만원(교재비 포함)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eco.catholic.or.kr>) 및 전화 접수(02)727-2283, 2278)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가톨릭상담봉사자 교육

때: 매주(화) 오후 2시~4시(1, 2학기 / 총 16주)
회비: 학기당 8만원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김해선), 뮤지컬(이슬), 바이올린(김수연), 심리강좌(윤제원), 이태리어 배우기(류재마), 집단상담(최원정), 해금(정겨운)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문의: 02)727-2126

3)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45분 / 강의, 축복기도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이상기

성모솔숲 말씀 치유 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때: 매일 둘째주(금~주일) 2박3일 4월 11일~13일·5월 9일~11일·6월 9일~11일 / 010-3209-3955 (문자 접수)

새남터 순교성지 사순 1일 피정
때: 3월 22일(토) 오전 10시 / 파견미사: 오후 3시
회비: 1만원(중식 제공) / 사진 접수
문의(접수): 070-8672-0327 성지안내소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백준호 신부(프란치스코 수도회 쪽방촌 봉사)
때, 곳: 3월 19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4월 2일~4일(주차도 포함)·4월 7일~9일·5월 10일~12일·5월 20일~22일·6월 15일~17일(주), 주차도포함 성지순례 4월 12일~15일·4월 27일~30일·5월 4일~7일·5월 26일~29일·6월 1일~4일·9월 9일~12일, 우도섬 포함 여름 피정 7월 19일~21일, 7월 31일~8월 3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14동작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낮피정 / 문의: 010-3341-1354
때, 곳: 13시~16시, 동작동성당 3층 대성전
3월 18일(화) 김선태 신부 4월 15일(화) 김성대 신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3월 28일(금)~30일(주일)
성경 완독 4월 4일(금)~12일(토), 5월 9일(금)~17일(토)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6월 20일~21일, 사당 출발
전주·광주	4월 9일~11일 대구교구
홍성남 신부와 고토·나기사기	5월 22일~23일
	6월 16일~20일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3월 21일~23일, 4월 11일~13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4월 5일~6일
품그리기(자녀사별 프로그램 10주간) 수시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35차 3월 21일(금)~29일(토) 문의: 061)373-3001, 010-6216-5346
제136차 4월 11일(금)~19일(토)
제137차 5월 16일(금)~24일(토)

12서초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263-6718
때: 매주(월) 3월 24일 14시~17시 / 미사, 말씀, 안수
곳: 서초동성당 대건관 1층 / 배형진 신부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 010-9363-7784
때, 곳: 4월 25일~28일·5월 16일~19일·6월 20일~23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탐방·성지순례
때: 5월 24일~26일(대구 17차)·6월 14일~17일(부산 11곳·마산 6곳)·6월 21일~23일(춘천 15곳·성내동)·가톨릭회관 후문 출발, 8월 28일~9월 3일(백두산·브뤼기에르 주교 고난의 길)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4월 1일~3일·4월 5일~8일(주차도)·4월 10일~12일·4월 14일~16일·4월 25일~27일·4월 29일~5월 2일(주)·5월 4일~6일·5월 9일~11일·5월 13일~15일·5월 17일~20일(주)·5월 21일~23일·5월 24일~26일·6월 2일~4일·6월 6일~8일 /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4월 12일(토)~13일(주일), 6월 28일(토)~29일(주일)
3박4일 3월 27일(목)~30일(주일), 4월 3일(목)~6일(주일)
8박9일 4월 23일(수)~5월 1일(목), 5월 14일(수)~22일(목)
40일 4월 21일(월)~5월 30일(금)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성지순례(크로아티아·메추고리역)	4월 27일~5월 9일(12박13일)
수년간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3월 28일~30일(2박3일)
단식 피정	4월 9일~13일(4박5일)
사순 피정	3월 18일·25일·4월 1일 10시~15시30분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파티마의 세계 사도적)

때: 3월 24일~4월 28일 매주(월)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02)756-3473, 010-2759-3473
3월 24일(월) 소개강의, 세속정신 고통 1 배영삼 수녀
3월 31일(월) 세속정신 없애기 2 이은숙 수녀
4월 7일(월) 자기 자신을 알기 김정진 신부
4월 14일(월)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최미경 수녀
4월 21일(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박찬복 신부
4월 28일(월) 봉헌의 생활화 이정순 수녀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차차 / 02)867-7900

주일이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교육

수제 목주 조각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rosary10 / 문의: 010-5234-5044

미사반주자 교육 / 문의: 010-3203-8183
곳: 9강동지구오르간교육연구소(천호동성당)·주최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5월 14일~28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51기 개강 2주차

때: 3월 10일(월) 10시·3월 19일(수) 19시
곳: 가톨릭회관 527호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가톨릭여성연합회 원어민 영어회화교실 모집

원어민 영어회화교실 초급반 추가 모집
때, 곳: 주1회 2시간, 가톨릭회관(명동) 513호
회비: 3개월 15만원(연회비 별도) / 문의: 02)778-7543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41차) 수강생 모집

곳: 가톨릭회관 202호 / 회비: 9만원(3개월, 교재비 별도)
개강: 4월 2일(수) 초급·기초반, 4월 3일(목) 중·고급반
인원: 기초·초급반 각 10명, 중·고급반 약간명
계좌: 우리은행 1005-704-579910 북방선교회
접수: 3월 16일~4월 3일 / 010-6314-0457 양 글라라

(수)	초급반 10시30분~12시30분, 기초반 13시30분~15시30분
(목)	중급반 10시30분~12시30분·고급반 14시~16시

'기도하며 기도를 배웁시다' 성체조배 불 영성학교

때, 곳: 매주(수) 14시~16시, 영성센터(명동) B201호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3월 19일	김현덕 신부	3월 26일	강한수 신부
4월 2일	이은형 신부	4월 9일	장궁선 신부
4월 16일	안내숙 회장, 임승철 신부	회비: 5만원	

신앙과 인문학, 새로운 만남

때: 4월 8일~29일 매주(화) 19시30분(4강) / 청년 할인
현장강의 또는 녹화강의 선택 / 문의: 02)2135-9398 한국CLC(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1강(4월 8일)	신 앞에 선 인간	박승찬 교수(가톨릭대)
2강(4월 15일)	탈종교시대, 종교를 말한다	성혜영 교수(서울대)
3강(4월 22일)	다산 정약용이 꿈꾸었던 세상	정민 교수(한양대)
4강(4월 29일)	하느님의 경제학	김민직 교수(한국기술교육대)

예수회센터 동영상 강좌(지난 학기)

각 6주 과정 / 이메일과 문자로 동영상 링크 발송
더 많은 강의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개강 /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	이진현 신부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김민철 신부
구약으로 만나는 하느님의 여러 얼굴들	김민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번째 길-방어기제와 감정	최지원 수녀
명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	박혜원 강사

어른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한국여성생활연구원)
어른 초등학교·중학교(교육부 학력인정), 영어기초 ABC, 한글반, 시니어중이접기조형 지도자과정, 다중이인형공예 / 문의: 02)727-2471

말씀의 집 성서백주간 모집(성서백주간)
성경 전체를 통독, 묵상, 나눔, 실천하는 모임으로 분당 내에서 백주간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새로운 반을 개설합니다 / 문의: 010-3557-4410
곳: 말씀의 집(신월동) / 4월 4일까지 선착순 접수

전례 음악 학교 수강생 모집
과목: 그레고리오 성가와 전례, 성악, 오르간, 합창지휘 / 대상: 성음악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강사: 가톨릭대학교 음악과 교수진 / 3월27일까지 접수
곳: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 <https://cecilia.catholic.or.kr>
문의: 010-2272-0180 세실리아성음악협회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준비, 진로탐색·자격증 취득(요리·제과·사진·바리스타·포토샵 등), 자기계발(기타·원어민 영어회화·토론·글쓰기·필라테스·일본어·보컬·작곡 등)
검정고시·수능지도 봉사자 수시 모집 중(1365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모집

카리타스 합창단 모집 / 문의: 010-2686-0185
때: 매주(월) 18시30분 / 55세 이하 남녀 교우

시스띠나 시니어 합창 단원 모집
곳: 신촌 / 그레고리오 성가, 구노 미사곡 연주
지휘: 이호중 교수 / 문의: 010-7257-4255

2025년 상반기 무자카사크라 소년합창단 단원 모집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소속 /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과 함께할 남자 어린이를 기다립니다
대상: 초2~5학년 남자(가톨릭 신자) / 010-7242-6027

미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 미사·사순 특강
내용: 특강,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주제: 함께 하시는 하느님 / 강사: 최항진 신부
때, 곳: 3월 17일(월) 14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평화모원 한식미사(전농동성당)
평화모원(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소재)의 2025년도 한식미사를 아래와 같이 집전하고자 하니 모주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02)2241-7841
때, 곳: 4월 5일(토) 오전 11시, 평화모원(내) 야외 미사장 / 집전: 전농동성당 주임 신부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월례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해외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3월 31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1) 사당5동성당 후원회 미사: 3월 20일(목) 오전 10시
2) 명동대성당 문화관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때: 4월 2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안내

나루 상담센터
곳: 강남 / 대상: 심리적·정신적·영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도움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나’를 찾아가는 내면아이 마음여행(집단상담)
때: 4월 19일(토) 10시~18시·4월 20일(주일) 10시~16시
곳: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 www.jiscen.or.kr
문의: 02)726-0700 전진상 영성센터

가리마스 알코올회복센터
알코올의존자 당사자 주·야간 교육, 가족교육 운영
자녀교육: 고통받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매주(수) 19시 / 문의: 02)521-2364
회복을 위해 가리마스알코올회복센터와 함께해요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강남구 성요셉유치원 50주년 안내
50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1회~49회(1975~2023) 졸업생들의 유치원 생활 모습이 담긴 추억 사진을 모집합니다 졸업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는 곳: stjosep2017@naver.com
문의: 02)543-8819, 010-5333-8819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 기관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동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3월 25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직원모집

가톨릭청소년이동쉼터 서울아지트 직원 모집
분야: 후원자 회계 및 응대 담당 / 이메일: ajit@ajit.or.kr
후원자 회계 및 응대 관련 경력 우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ajit.or.kr>) 참조

서울평단협 사무국 직원 모집
분야: 행정 담당 간사 1명(회계 프로그램(터존) 사용 가능자 우대) / 3월 24일(월)까지 이메일 접수
서류: 서울평단협 입사지원서, 교적 사본 각 1부
홈페이지(www.clas.or.kr)·알림·공지사항 참조

서울대교구청 행정점검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회계 관련 경력자 우대
분야: 회계감사 및 재무분석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3월 30일(주일)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직원모집 메뉴 반드시 참조 / 이메일(cphhr@catholic.or.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편집국	복디자인 및 기타 편집디자인 / 전문 편집
제작국	주보 및 각종 인쇄물 디자인·제작
CRM사업국	매장 판매 및 관리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3월 29일(토)	수도원(혜화동)	010-9528-2625 모세 신부
도미니코회 천주의 모친 봉쇄 수도원	4월 26일(토)~27일(주일) / 피정	충북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5길 43	010-6561-2906(dominicocorea.modoo.at)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 때(Zoom)	Zoom 만남 / 부산·서울 수녀원	010-9353-1773 (미리 연락)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희망의 증거자 고통받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지음
40쪽 | 무료 배포(홈페이지에서 신청)
문의: 02)796-6440, 010-7475-6440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ACN은 2025년 희년을 맞아 '희망의 증거자인 현대의 순교자들'이라는 주제로 사순(중점)부활 캠페인을 벌여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지원하고, 희망의 빛을 지켜내기 위한 사명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초대한다. 이 책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치면서 신앙 안에서 굳건한 연대를 맺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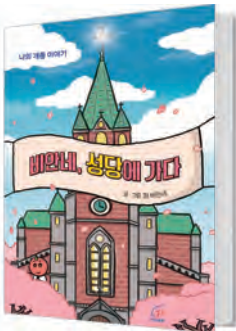


신간

선종완 깊은 숲 영란처럼 향기롭게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엮음
기쁜소식 | 324쪽 | 2만원
문의: 02)762-1194

삶의 토대를 오로지 성서에 두었던 선종완 신부님은 일생을 신학교에서 성서를 가르친 성서학 교수로서 한국 가톨릭교회 최초로 구약성서를 홀로 번역하셨다. 이 책은 선종완 신부님의 생애와 신부님이 설립하신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의 연대기를 정리하여, 신부님의 숭고한 결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간

비안네, 성당에 가다

정 비안네 지음
바오로딸 | 336쪽 | 1만7천원
문의: 02)944-0944

선교사의 꿈을 안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개신교 신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기까지 저자 자신의 체험을 만화로 진술하고 재미있게 전해 준다. 무엇보다 가톨릭 신앙의 귀한 가치와 교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가톨릭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은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이다.



도슨트

신청
큐알(QR) 스캔

명동대성당 도슨트 프로그램 상반기 정기 일정

때: 4월 2일(수)~6월 21일(토) / (수) 14시·(토) 10시 40분·16시 30분
신청방법: 도슨트 홈페이지(cc.catholic.or.kr/docent)
직접 접속 또는 큐알코드 이용하여 접속 후 신청
문의: 02)751-4104 홍보위원회

명동대성당은 한국 근대 건축사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며,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가톨릭 미술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성전이다. 교구 홍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명동대성당의 역사와 건축, 전례, 성미술, 스테인드글라스에 담긴 복음적·예술적 메시지를 들으며 명동대성당을 새롭게 만나보길 바란다.



전시

빛의 거장 카라바조 & 바로크의 얼굴들

기간: 4월 5일(주일)까지
관람시간: (화~주일) 오전 10시~오후 7시(매표 및 입장 마감 오후 6시 /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 / 문의: 02)909-4752
입장료: 성인 2만2천원, 청소년 1만7천원, 어린이 1만4천원(36개월 미만 무료)
전화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 4명 30% 할인

대한민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전시 '빛의 거장 카라바조 & 바로크의 얼굴들'은 이탈리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우피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의심하는 토마스>, <그리스도의 체포>, <이 뺨은 사람> 등 세 작품을 포함한 카라바조의 회화 10점과 동시대를 풍미한 바로크 거장들의 회화 47점, 총 57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르네상스 시대가 막을 내리고 바로크 시대가 열리는 17세기 유럽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 명동대성당 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대상 : 남녀 가톨릭 신자 (60년 이후 출생자)
·연 습 : 매주 금 오후 7~9시, 토 오후 5~6시
·활 동 : 매주 토 오후 6시 주일미사 및 사제·교우 장례미사
·접수마감 : 3/23(일)까지
·오 디 셴 : 3/29(토) 오후 7시 (지원서 제출자에 한함)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3층 명례방
※자유곡 악보 2부, 교적증명서(밀봉 요망) 지참
·접수문의 : 단 장 ☎ 010-3386-6140 (※문자 요망)
부단장 ☎ 010-5315-3435 (※문자 요망)

◎ 명동대성당 평일미사독서단 남성 단원 모집

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50세 이하 남성 신자로서
평일미사(오후 6시, 7시) 독서 전례 봉사가 가능한 자
·서류 : 지원신청서(이메일 제출)☞홈페이지 단체모집 게시판 참조
교적증명서(오디션 당일제출)☞일정은 개별 공지 예정
·마감 : 3/26(수)까지
·문의 : 단장 keshiri@naver.com

◎ 명동대성당 미사안내봉사단 단원 모집

·봉사시간 :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주일 오후 6시 미사
·자격조건 : 가톨릭에서 세례 받으신 신자
·제출서류 : 입단 신청서, 교적증명서
·문 의 : ☎ 010-5894-9943 (문자)
이메일(samlomsoo@gmail.com)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고

◎ 아미쿠스 주일학교 남자교사 모집

아미쿠스 주일학교는 미사를 참례하고자 하는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남자교사가 부족하여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만 20세~만 40세 가톨릭 신자
·주요활동 : 주일 오전 10시 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 하는 미사, 미사 후 교리 등
·문 의 : mdsd.amicus@gmail.com (※메일로 연락 요망)

◎ 명동대성당 장년·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공통사항 : 세례 받은 남녀 (교적 본당 무관)
·입단문의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2431-3004
- 천주의 성모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9279-2381
- 평화의 모후 꾸리아 (☞ 35~45세 청장년)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 명동대성당 장년봉사분과 봉사 회원 모집

·모집조건 -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만 45세~65세 남성 교우
명동성당 행사 및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분
·제출서류 -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종현회 :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2838-6401
·대건회 : 매월 1회 비정규일 화합 ☎ 010-9011-8990
·범우회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6340-3528
·광암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8713-2000
·하상회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3687-2322
·만천회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8611-4097

◎ 2025년 상반기 견진성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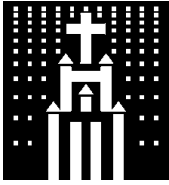
·견진성사 : 6월 8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교리시간 : 4월 27일 ~ 6월 1일 (매 주일) 5주간
(☞ 5월 4일 휴강)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대면 수업
★★ 오후 1시 40분까지만 출석으로 인정,
5주 모두 참석 시 견진성사 가능 ★★
·신청대상 : 가톨릭에서 세례성사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20세 이상 교우 (단, 세례성사를 받고 3개월이 지난
교우부터 신청 가능)☞2025년 1월 세례자까지
·교리장소 : 코스트홀
·교리교재 :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 가톨릭출판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펴냄
※교재는 성물방이나 가톨릭출판사(www.catholicbook.kr)
에서 각자 구입하여 지참
·신청방법 : 사전·온라인·전화 신청 불가!
① 현장 접수 : 3월 30일(주일) / 성당마당 부스
오전 10시~오후 5시
② 방문 접수 : 3월 11일(화) ~ 4월 20일(주일)
본당 사무실 (월요일 휴무)
·구비서류 : 빠짐없이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발급장소
명동성당 교적신자	① 증명(또는 반명함)사진 1장	-
	② 세례성사증명서	교적 본당
	③ 견진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④ 견진 대부모님의 견진성사증명서	대부모님의 견진본당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타 본당 교적신자	상기 구비서류(①~⑤)	
	⑥ 신청자 본인 교적증명서	교적 본당
	⑦ 견진의뢰서	

※'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장애(=조당)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함이니 '상세내역'으로 발급 후 밀봉하여 제출하십시오.
(☞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사본도 제출 가능)
※'⑦ 견진의뢰서'는 견진신청서 본문 중앙에 명시돼 있으며,
교적 본당 사무실을 통해 반드시 주임 신부님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5월 18일(주일)까지 '접수비(현금 10,000원)'와 '견진
성사 감사예물'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작은 연주회

「주님과 음악 사이에」
·일 시 : 매월 첫째 · 셋째 주일 / 오후 3시 30분
·장 소 : 명동대성당 대성전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락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 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오로) 신부
전례·성음악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장애인신앙교육 이승규(토마스아퀴나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세베로 이사악(이사악)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115

봉헌 : 213, 262, 511

성체 : 180, 162, 172

파견 : 281

◎ 2025 명동대성당 사순 특강

·시간/장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8시 / 대성전

일 자	주 제 & 강 사
3월 17일 (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외국인학생 담당 -

◎ 십자가의 길 : 3월 21일(금) 오후 6시 미사 후

《 미사 봉헌 장소 변경 》

교향선출기념미사 및 WYD 대성당 행사 관계로
3월 26일(수), 3월 28일(금) 오후 7시 미사는
'파밀리아 채플'에서 봉헌합니다.

《 한식 합동 위령 미사 》

4월 5일(토) 「한식(寒食)」 당일 거행되는 오전 미사는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됩니다. 합동 위령 미사에물을 접수하실 분들은
4월 4일(금)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시거나 당일
합동 위령 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 오전 7시, 10시

◎ 2025년도 초등부 첫영성체 교리반 신청

·대 상 : 명동에 교적이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어린이
·교리시작 : 4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교리일정 : 토요일 오전 10시 미사 참례 후
11시부터 12시까지, 5개월간
·신청기간 : 3월 16일(주일) ~ 4월 13일(주일)
·신청장소 : 본당 사무실 (※선착순 30명)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 교적증명서 함께 제출 필수

◎ 3월 세례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2,254,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2025년 상반기 견진성사 신청

※견진성사 및 교리 일정,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안쪽 면' 참고!

◎ 사순 시기(3월 5일~4월 16일) 판공성사

※재의 수요일부터 보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
됩니다. 판공성사표는 본당 사무실에서 배부 중이며,
4월 16일까지 판공성사를 보신 분들은 교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제출해 주십시오. 성사표 없이 성사 보신
명동 교적 신자분들은 사무실에 꼭 알려 주셔야 합니다.
※타본당 신자인 경우 본인 교적본당 사무실에 문의
(☞ 고해성사 요일과 시간은 '주보 하단 표' 참고)

◎ 부활 집중 판공성사

날 짜	시 간	장 소
4월 13일(주일)	10:00~20:00	상설고해소
4월 14일(월)	11:00~20:00	
4월 15일(화)		
4월 16일(수)		

※고해성사 휴무 : 4월 17일(목)~4월 19일(토) (성삼일)

※4월 20일(주일)부터 고해성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 4월 21일(월)은 성직자·수도자를 위한 고해성사는 없음.

◎ 명동대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후원금 접수

배움의 열정이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엘리사벳 장학회에
정성 가득한 후원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후원계좌 : 우리은행 004-611313-01-085

명동성당 엘리사벳 장학회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3/3-3/9).....26,073,203
· 사순 제 1 주일 헌금.....40,337,001
· 감사헌금 (3/3-3/9).....3,685,000
강 디모테오 / 김 로사리아 / 김 바오로 / 김 요셉 / 백 안젤로
서 세실리아 / 심 알베르토 / 이 대건안드레아 / 이 라파엘라
이 레오 / 이 마리아 / 이 이냐시오 / 임 사무엘 / 지 안젤라
천 테클라 / 최 안나 / 표 요안나 / 현 베로니카 / 홍 베로니카

미 사 (M a s 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주일미사 (토요일)	18:00, 19:00(3545+ 청년미사)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월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평일미사	월	07:00, 18:00					
		화-금	07:00, 18:00, 19:00					
	토	07:00						
성지미사	월-토	10:00	Sun.	08:30 - 08:5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Sat.	16:00 - 17:0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 1% 행복발견 】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행복 발견하기'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있기에 행복합니다.